

新心理學說과 맑스學說의 出發點 (二)

金一線

이 新心理學에 依하면 行動은 我에 根源하여 自體를 完成케 하는 바 手段이며 器具다. 이 見解로서 觀察하면 우리의 生命의 炬火인 知能은 아직 未完成 行動인 무엇(alternative)으로서, 어느 試行錯誤的 存在를 滅失치 안코저 하는 可能力(Capacity)이라고 한다. 이와 가티 우리들의 精神活動은 生命構成 要素의 作用으로서 本質上 最低生命의 慾求 達成의 方法인 無計劃的 選擇作用과 가튼 것이다. 概念은 이 意味에 잇서 우리들의 慾望의 試行錯誤的 案出이 有力한 參與를 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新心理學에서 보는 바 心理現象을 解剖, 分析하여 그 實相을 觀察하자.

新心理學에서 보는 바 心理現象은 四面相에 나눌 수 업는 바 一圈으로서 그를 取扱할 수가 있다. 第一은 먼저 機體에 在한 生의 衝動에서 出發한다. 다음 意識過程은 이들 生에 불타는 바 衝動의 部分的 表出의 相이니, 이 面相에 잇서서는 生衝動의 豫期的 行動의 全部가 아직 充足되지 못하는 바 豫期的 經驗의 準備가 形成된다. 第三面相은 生衝動의 現象에 表示된 事實의 行動(Overt conduct)이다. 第四面相에 이르러 滿足의 形態로써 再次 우리들 機體에 도라온다. 이 滿足은 一部分 物的이며 一部分 社會的이다. 이와 가티 新心理學의 基礎에 在來의 科學的 心理學과 行動主義派는 論證을 附與한다. 우리는 從來의 直線的 受容--刺激--反應--에서 圓的인 圈으로서 說明하게 되는 心理現象에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다. 電子의 動態를 바른 便 눈의 擴大鏡으로 보고, 天體의 動態를 외인 便 눈의 望遠鏡으로 보는 學者의 狂的 歡喜에 썩었다는 이약이다. 그리하여 그 神和를 禮讚하는데, 그는 神이여! 오! 造化의 神秘여! 宇宙의 實在는 非物質이로다. 電子非物質論, 世紀末의 作謨術, 宗教와 科學의 結合運動의 發生을 躊躇 안케 되었다는 腰折할 이약이다. (繼續)